



헥터

약속 지키는 호랑이

“200이닝” 헥터, 133.1이닝 소화하며 최다이닝 1위

3년만에 20홈런 나지완 “30홈런 욕심없이 치겠다”



나지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호랑이 군단’의 4번 타자와 에이스의 고군분투가 계속된다.

7월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기세의 나지완과 헥터다. 4번 타자로 복귀한 나지완은 26일 경기까지 7월 18경기에서 0.412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8개의 홈런으로 14타점을 만든 나지완은 10차례 삼진은 당했지만 19개의 볼넷을 골라내면서 출루율(0.475) 1위, 장타율(0.629) 3위에 랭크됐다.

올 시즌을 앞두고 나지완은 30홈런 100타점을 이야기했었다. 통산 최다 홈런은 2009년 기록한 23개, 최다타점은 2013년 96타점이다.

지난 시즌 자독했던 부진을 생각하면 무모한 약속 같았지만 나지완은 묵묵히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타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30홈런은 가능한 목표다.

26일 kt와의 경기에서 백외트를 상대로 선제 결승 스리런을 터트리며 시즌 20호를 기록한 나지완은 “주자가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었다. 너무 완벽하게 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주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30홈런을 목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너무 의식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하다 보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도록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우선 목표다. 흐름은 좋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욕심 없이 타격을 하고 있는 중이다. 타격 상승세에도 급하게 공격에 나서지 않고 여전히 차분하게 공도 골라내고 있다.

나지완은 “목표는 나를 위한 메시지였다.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다. 욕심은 나는데 의식하지 않고 흘러가듯 목표를 이루고 싶다”며 “많은 연습을 해서 그런지 여유가 생겼다. 부담 없이 재미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헥터도 200이닝 약속을 위해 착실하게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26일 kt전 선발로 출격한 헥터는 6이닝 5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의 기록으로 시즌 9승에 성공했다.

투구수는 101개. 7월31일 SK전까지 두 차례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6이닝에서 등판을 멈췄다. 하지만 133.1이닝으로 131이닝을 소화한 양현종의 격차를 벌리면서 최다이닝 1위 독주를 이어갔다.

7월 4차례의 등판에서 29이닝을 소화한 헥터는 6자책점으로 실점을 묶으면서 1.8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7월 거침없는 기세 속에 시즌 평균자책점이 3.24로 낮아지면서 두산 니퍼트(3.16)에 이어 전체 2위다. 니퍼트가 105.1이닝을 던진 것을 감안하면 헥터의 앞날에 기대감이 커졌다.

집중력 있는 피칭이 헥터의 위력을 더한다. 헥터는 앞선 롯데전에서 1회 3실점을 하면서 흔들렸지만 이후 7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7이닝 3실점으로 등판을 끝냈다. 26일 잠룡 더위라는 낮은 환경에서도 그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헥터는 “날이 더워서 100%의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타자들이 점수를 많이 내주면서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앞선 등판에서는) 영점을 못 잡아서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컨트롤에 집중하면서 던졌다”고 언급했다.

평균자책점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지만 일단은 이닝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자신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헥터는 “평균자책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긴 이닝을 생각한다. 최대한 오래 던지려고 한다”며 “200이닝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가대표 투수, 뭉가 아쉬워서

올 시즌 다승 20위내 선수 승부조작 의혹 경찰 수사중

KBO, 2012년~이달 24일 1회 볼넷 1950경기 조사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신고한 KIA 타이거즈의 좌완 투수 유창식(24) 외에 국가대표 출신 투수 한명도 승부를 조작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투수는 2016 시즌 다승 20위 안에 들 정도로 유망한 선수여서 더욱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조만간 현직 프로야구 투수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신고한 유창식 선수와 비슷한 시기에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승부조작에 가담한 경위와 대가성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승부조작에 연루된 야구선수가 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박현준, 김성현 등이 영구 제명된 지 4년 만에 또 다시 불거진 ‘2차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벌써 선수 4명이 연루됐다.

먼저 승부조작을 자진신고한 유창식은 지난 25일 경찰에 출석해 한화 이글스 소

속이던 2014년 4월 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와 4월 19일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총 300만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 1회초 공격에서 상대편에 볼넷을 주기로하고, 대가는 경기가 끝나고 현금으로 받았다.

경찰은 이번 프로야구 승부조작에는 전직 야구선수가 브로커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야구 NC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문우람은 현재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현역병인 점을 감안해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같은 상황에 KBO는 검찰·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승부조작 선수를 자체 적발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KBO는 야구인 3명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2012년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1회 초, 1회 말에 볼넷이 나온 1950경기를 모두 조사해 승부조작 의심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석민 선발 투입 많은 시간 걸릴 것”

덕아웃 T 특특

▲많이 던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조?

윤석민이 불펜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어깨 부상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던 윤석민의 복귀가 가시화하고 있다. 불펜 피칭으로 몸을 끌어올렸던 윤석민은 27일 고양 다이노스와의 퓨처스 경기를 통해서 본격적인 실전체제에 들어갔다. 김기태 감독은 “이닝과 투구수를 끌어올리고 피

칭 뒤 상태 등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선발로 준비할 경우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30개 던지고 사흘 쉬고, 40개를 던지면 나흘을 쉬어야 하는 등 이후 단계적으로 투구수를 끌어올리기에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윤석민의 불펜 기용에 대한 뜻을 밝혔다.

▲이것도 재미있네오 야구 선수에서 전력분석 코치로 변신한 김민우의 소감은 “재미있다”였다. 은퇴를 선언하고 잠시 여행을 다녀왔던 김민우가 27일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참 그라운드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던 시간, 사복 차림의 김민우는 전력분석팀과 자리를 하면서 새 업무 준비에 들어갔다. 김민우는 “쉬기도 많이 쉬었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다”고 활짝 웃었다.

▲주루포기입니다 26일 kt와의 경기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다. KIA가 7-0으로 앞선 7회초, kt의 2사 1루 공격 상황에서 대타 김영환이 타석에 들어섰다. 파울에 이어 헛스윙으로 투 스트라이크. 그리고 세 번째 공에

다시 한번 김영환이 헛스윙을 했지만 포수 백용환이 공을 놓쳤다. 스트라이크 낮 아웃 상황에서 김영환이 1루를 밟으면서 2사 1·2루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1루에 안착했던 김영환이 그대로 덕아웃으로 향했다. 순간 1루수 브렛 필이 투수 최영필에게 어필, 공을 받아서 1루 베이스를 밟았다. 이에 포스아웃이 선언됐고 이닝이 종료됐다. 아웃카운트를 착각하면서 빚어진 황당한 플레이. “주자가 1루를 밟은 후 베이스라인에서 벗어나 다음 베이스로 가려는 의사를 명백히 포기하는 경우는 아웃으로 처리한다”는 야구규칙 7.08조 2항에 따라 주루포기 아웃으로 처리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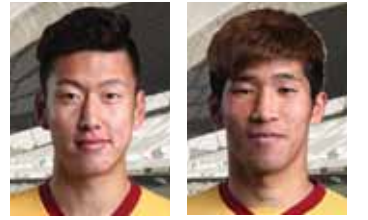
광주 FC 송승민·정호정 ‘베스트 11’

광주 FC의 송승민(MF)과 정호정(DF)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클래식 24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 송승민과 정호정이 나란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승민은 평가위원회로부터 “대승의 발판 만든 선제공격 주인공.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를 이용해 상대 수비를 공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호정도 “안정적인 수비로 무실점 승리에 일조했다. 후방에서 정확한 패스로 정조국의 쐐기골을 도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송승민

정호정

광주는 앞선 상주와의 24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4분 터진 송승민(조용태 도움)의 골을 시작으로 주현우-정조국(정호정 도움)-오도현(파비오 도움)의 연속골을 앞세워 4-0 대승을 거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빅리거 打·打·打

김현수·이대호·강정호·최지만 안타... 오승환 무실점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메이저리그 복귀전에서 안타와 볼넷으로 두 차례 출루에 성공하며 ‘출루 머신’의 위용을 과시했다.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더블헤더 1차전에서 무실점 투수로 시즌 5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와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 최지만(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은 나란히 1안타씩을 쳐냈다.

김현수는 27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복귀 첫 경기에서 두 차례 누상에 나간 김현수는 시즌 타율 0.329(155타수 51안타)를 유지했다.

김현수는 지난 11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다쳐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이날 빅리그 복귀전을 치렀다.

김현수는 1회말 1사에서 상대 우완 선발 채드 벤티스의 시속 119km 커브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3회말 1루 땅볼에 그친 김현수는 5회말 볼넷으로 걸어나가 두 번째 출루에 성공했다. 볼티모어는 3-6으로 패해 5연승 행진을 멈췄다.

오승환은 뉴욕 메츠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 팀이 3-2로 앞선 9회말 마무리투수로 등판,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기록했다.

오승환은 커디스 그랜더슨에게 좌전 안타를 맞으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다음 타자 요에니스 세스페데스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이때 그랜더슨이 진루를 노렸다가 2루에서 잡히면서 오승환은 손쉽게 아웃 카운트 2개를 잡아냈다.

오승환은 마지막으로 제임스 로니를 7구 만에 2루 땅볼로 처리하면서 1점 차 승리를 지켜냈다. 오승환의 시즌 5호 세이브다. 오승환의 평균자책점은 1.79에서 1.75로 내려갔다.

시애틀과 피츠버그의 경기에 각각 5번 타자 1루수,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이대호(5타수 1안타 1득점)와 강정호(4타수 1안타 1타점)는 사이좋게 안타 하나씩을 추가했다.

이대호는 7경기 만에 안타를 쳐냈다. 3회초 2사에서 피츠버그 좌완 선발 프란시스코 리리아노의 4구째 체인지업을 받아쳐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이후 두 타석에서는 모두 삼진으로 돌아섰다.

5번 타자 3루수로 나선 강정호는 1회말 1사 3루에서 유격수 앞 땅볼로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시즌 31번째 타점을 기록했다.

강정호는 6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시애틀 에이스 펠릭스 에르난데스의 3구째 포심 패스트볼(약 147km)을 밀어쳐 우월 2루타를 쳐냈다. 하지만 팀이 4-7로 뒤진 7회말 2사 1·3루에서 잘 맞은 타구가 유격수 정면으로 향해 아쉬움을 남겼다. 피츠버그는 4-7로 패했다.

최지만은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7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여섯 번째 타석 만에 안타를 쳐내고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에인절스는 장단 22안타를 퍼부어 캔자스시티를 13-0으로 대파했다.

연합뉴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가 27일 경기에 앞서 함께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